

“기업의 경기부양 위해 규제개선 필수”

전북상협, 기업투자 확대 위한 규제완화 촉구 도내 향토기업 ‘동우팜투테이블’ 타지역 이전 위기 새만금산단에 가공류 가공·처리업체 입주 허용 건의

전북도 대표 향토기업이자 전국 최대 닭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단으로 공장 신설 및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타지역으로 이전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지난 5월 27일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 제한업종의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2018년 3월

새만금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 3,000여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약 4만여평의 공장부지를 지원해 줄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했으며, 이는 약 1,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9월 28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열도,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이스콘 제품 제조업 등의 입주를 제한 계획을 발

표하면서 ‘도축업종’에 해당하는 (주)동우팜투테이블의 공장 이전 및 투자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형태는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제조업의 유치를 막고 오히려 입주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투자를 불허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지난날 현대중공업의 기동중단과 한국지엠의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건설한 지역향토기업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업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는 사례”라며, “새로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신기술을 적용한 첨단시설로 환경 친화적인 공장을 건설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 우려하고 있는 악취 발생 문제를 원천봉쇄하고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혁신금융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나선다

JB금융그룹, OBP사업 추진·해외플랫폼 비즈니스 업무제휴 강화

JB금융그룹(회장 김기흥)이 혁신금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JB금융그룹은 디지털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오픈뱅킹플랫폼(OBP) 사업’을 계열 은행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중심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비즈니스 업무 제휴도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픈뱅킹플랫폼(OBP) 비즈니스는 그룹 디지털 전략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지주사와 계열 은행들이 함께 추진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끝내는 등 사전 준비단계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비즈니스는 계열 은행사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각 계열사별로 광주은행은 해외송금 제휴 업무를, 전북은행은 P2P대출 사업을 해가며, 동시에 계열 은행 모두 내부적인 디지털화를 위해 비대면 채널 고도화, RPA(자동화 로봇 기능),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디지털 사업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지주사 디지털 담당 임직원들도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 은행으로 이동하는 인력재편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비즈니스는 동남아 지역 디지털 금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조경수 묘목사업 활력화 위한 정기총회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조경수 묘목사업의 활력화를 위해 27일 지역 본부에서 협의회 조합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2018년도 산림청 입업통계연보의 2017년도 조경수 생산현황을 보면 전북의 생산량은 1,500만본으로 전국 6,500만본의 23%를 점유하며, 생산액은 784억원으로 전국 6,203억원의 12%를 점유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등으로 조경수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북농협이 발 벗고 나서 사업 활력화를 위한 의견을 모은 자리로, 주요 조경수 생산 지역 농협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 운영과 선진지 벤치마킹, 농가조직화 및 판로 개척 등 전북농협의 2019년도 조경수 판매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2018년 조경수 판매실적은 602억원으로 전년대비 151억원이 성장했으며, 전국 총 판매실적 711억원의 84.67%를 점유하는 등 조경수 협의회 발족이후 전북농협의 조경수관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선출된 전북 조경수 묘목사업 조합장 협의회장(용진농협 정만철 조합장)은 “협의회 회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한 조경수 묘목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조경수 사업의 특성상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스타항공이 지난 26일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에 참여해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름다운 해안도로 즐기GO 환경도 지키GO

이스타항공, 이바라키현과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참여해 ‘플로깅’ 캠페인 진행

이스타항공이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에 참여해 마라톤 코스를 뛰고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에는 30여 개국 5,000여명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42.195km), 하프(21.0975km), 일반코스(10km), 해안도로 워킹(10km), 팀대항전(42.195km) 등 5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마라톤 축제는 국제행사인 만큼 일본, 중국, 홍콩 등 주요 지자체도 참여했다.

이스타항공은 일본 이바라키현과 공동으로 축제에 참여해 마라톤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와 함께 친환경 재생 봉투를 나눠주

며 해안도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하는 ‘플로깅’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과 이바라키현 관계자들은 플로깅 활성화와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10Km 해안도로 워킹 코스에 함께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해안도로와 해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과 이바라키현은 이날 플로깅에 동참한 참가자에게 친환경 실리폰백,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 등과 함께 추첨을 통해 인천-이바라키 노선 항공권을 증정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행 항공편의 기

내방송을 통해 쓰레기 퇴거요기 캠페인에 동참하며, 앞선 25일에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해안 정화활동인 ‘걸GO! 줍GO! 짝GO!’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스타항공 정재훈 이바라키 지점장은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제주도처럼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이바라키현과 함께 항공과 관광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활동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바라키는 도쿄와 인접해 이바라키와 도쿄를 연계한 여행이 가능하며 최근 현의 공항활성화 정책에 따라 대만, 중국, 베트남 등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북, 농어민단체장 초청 간담회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7일 전북본부중회의실에서 농어민단체장을 초청해 공사 주요 경영방향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농어촌이 처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강환 본부장은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며, “현장중심의 농어업정책 수행으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내실

화 △지역 특화된 농어촌지역개발 지원체계 구축 △주요참여영역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공사 주요 경영방향으로 설명했다.

이강환 본부장은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며, “현장중심의 농어업정책 수행으로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내실

지원사업) 자금지원) 사업지별 지원 안내(‘자세히 보기’ 클릭)에서 다운받 아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aT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 추가 지원규모는 150억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aT 전북본부,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 대상 사업자 추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함정운)는 수출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2019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지원대상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농식품(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출업체 대상으로 5월 31일(금)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신청서는 aT홈페이지(www.at.or.kr/고객

지원사업) 자금지원) 사업지별 지원 안내(‘자세히 보기’ 클릭)에서 다운받 아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 aT 전북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정책자금 추가 지원규모는 150억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우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전달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최근 참예우 명품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장학생 선발에 따른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조합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js.or.kr *전자우편 : jvjs@hanmail.net

